홍명보 첫 승·오현규 첫 골…태극전사 역사는 계속된다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 종료 후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전서 극적 역전…홍명보, 두 번째 감독 월드컵서 승장 합류

오현규 데뷔전서 마수걸이 골…손흥민, 최다 득점 도전 이어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역전승은 한국 축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다.

후반 14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 결승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 승리로 한국은 조 2위에 오르며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홍명보 감독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월드컵 본선을 지휘한 사령탑이 됐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아쉬움을 남겼던 그는 12년 만에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아 마침내 감독으로서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가운데 월드컵 승리를 거둔 지도자는 거스 히딩크(2002년·3승 2무 2패), 딕 아드보카트(2006년·1승 1무 1패), 허정무(2010년·1승 1무 2패), 신태용(2018년·1승 2패), 파울루 벤투(2022년·1승 1무 2패) 감독에 이어 홍 감독이 여섯 번째다. 한국인 감독으로는 허정무, 신태용 감독에 이어 세 번째 기록이다.

선수와 코치, 감독을 모두 합쳐 이번이 개인 통산 7번째 월드컵 참가인 홍 감독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선수 시절 첫 월드컵이었던 1990 이탈리아 대회 이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처음 승리를 경험했던 그는 감독으로도 12년 만에 첫 승의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이날 승리를 이끈 주인공은 오현규였다.

후반 24분 주장 손흥민 대신 그라운드를 밟은 오현규는 투입 11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데뷔전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다. 후반 35분 황인범의 낮고 빠른 크로스를 문전에서 왼발로 마무리하며 체코 골망을 흔들었다. 생애 첫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기록한 첫 득점이었다.

오현규의 골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그는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예비 선수 신분으로 대표팀과 동행했다. 등번호 없는 유니폼을 입고 선배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그는 언젠가 한국 대표팀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18번을 달고 월드컵 무대를 누비겠다는 꿈을 품었다.

황선홍, 조재진, 이동국 등으로 이어진 대표팀 공격수 계보의 상징인 18번. 오현규는 그 번호를 달고 자신의 첫 월드컵 무대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새로운 계보를 이어갈 주인공으로 존재감을 알렸다.

벨기에 무대를 거쳐 튀르키예 베식타시에서 성장한 그는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공격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주장' 손흥민의 존재감 역시 빛났다.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선 손흥민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약 69분 동안 공격을 이끌었다.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 그는 이날 득점에 성공할 경우 박지성, 안정환을 넘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4골)에 오를 수 있었지만 기록 달성은 다음 경기로 미뤘다.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6차례 슈팅을 시도하며 체코 수비진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전반 12분과 38분, 전반 추가시간, 후반 11분까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과 불운이 겹치며 골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주장으로서 경기 내내 공격을 이끌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명보 감독의 첫 승, 오현규의 첫 골, 그리고 손흥민의 네 번째 월드컵 도전. 체코전 승리는 각 세대의 태극전사가 함께 써 내려간 의미 있는 결과였다. 이제 한국은 오는 19일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으며 32강 진출 확정에 도전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 단오대회 '금강장사'

황성희 3-0 제압…개인 통산 25번째 황소트로피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이 '위더스제약 2026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우승을 차지했다.

최정만은 지난 12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금강장사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황성희(MG새마을금고씨름단)를 3-0으로 꺾고 꽃가마를 탔다. 이로써 최정만은 개인 통산 25번째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최정만은 이번 대회 8강에서 라현민(울주군청)을 안다리와 잡채기로 제압했고, 4강에서는 전도언(수원특례시청)을 2-1로 꺾고 치열한 접전 끝에 금강장사 결정전에 올랐다.

금강장사 결정전에서도 최정만의 기세는 이어졌다. 첫 번째 판 발목걸이로 기선을 제압한 최정만은 두 번째 판에서도 안다리 기술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마지막 판에서는 잡채기로 황성희를 쓰러뜨리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최정만은 지난 단양 대회에 이어 올 시즌 2관왕을 달성, 꾸준한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어르신 건강체육대회 개막…생활체육 활성화

27일까지 종목별 경기 개최

체조·탁구·테니스 등 6개 종목

광주시체육회가 추진하는 '2026 어르신 건강체육대회'가 14일 개막, 오는 27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2026 어르신 건강체육대회'가 이날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단체가 주관하며, 광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열린다. 매년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고 있는 대회로, 올해도 다양한 종목과 안전한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동호인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에는 체조와 탁구 종목에 각각 220명이 참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이어 레크리에이션 170명, 테니스 150명, 당구와 족구가 각각 120명씩 참가해 열띤 경쟁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종목별 일정은 족구 14일 하남스포츠파크, 탁구 14일 동림다목적체육관, 테니스 14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체조 27일 북구청소년수련관, 레크리에이션 27일 동림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당구 종목은 7월 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당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모두가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아데를린과 계약 종료

개인 사정으로 연장 계약 불발

KIA타이거즈가 대체 외국인 선수 아데를린 로드리게스와의 동행을 마무리했다.

14일 KIA에 따르면 6주 계약이 종료되는 아데를린과 연장 계약을 추진했으나, 선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아데를린은 지난 12일 경기를 끝으로 KIA 유니폼을 벗었다.

아데를린은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KIA에 합류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탰다.

32경기에 출전한 아데를린은 10홈런 31타점 타율 0.264 OPS(출루율+장타율) 0.862를 기록했다. 장타 생산 능력은 물론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중심 타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부상 재활을 이어오고 있는 카스트로는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기술 훈련을 진행 중인 카스트로는 13일 잔류군에 합류했고, 본격적인 실전 복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